

<인사말>

위례천막 결사가 두고두고 큰 공부가 될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참석할 수 없게 되어 무척 아쉽고 동참한 대중 스님들께 죄송한 마음도 함께 있습니다. 애초 저에게 이러한 일생일대의 정진에 동참을 제안해 주신 스님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막다른 길에 들어서 멈추지 않고 그 길을 뚫어 앞으로 나아가 준다면, 뒤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수월하게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천막 결사가 고행의 길이겠지만 발심을 해주신 만큼 매우 유익한 결실을 이루어 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오랫동안 정진을 해왔지만 아직도 어떠함으로 어떻게 중생과 함께 나누어야 할지는 늘 명쾌하지 않고 어렵기만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묶어내어 금번 천막 결사가 틀림없이 중생과 사회에 크게 회향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더불어 동참하지 못한 저에게도 깊은 가르침이 나눠주시어 제 아쉬움을 씻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상월선원의 치열한 수행풍토가 시대를 넘어 의미있는 사례가 되고 중생의 삶과 함께하는 수행, 분별없고 차별없는 가르침을 발현하는 수행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부대중 모두가 금번 정진이 주는 가르침을 각자의 근기로 잘 받아 삶에 보탬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불자 여러분의 모두에 대한 성취의 뜻도 담겨있는 정진이기에 신도님 모두가 어디에 계시든 수행정진에 크게 힘을 더해주시고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사에 드시는 스님 모두 예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힘든 한 철을 건강하게 잘 나시고, 그 건강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밝은 희망의 빛을 내려주시길 기원하며 저 또한 정진을 쉬지 않겠습니다.

불기2563년 11월 4일

정묵 합장